

2003년 수경 스님이 함께 삼보일배한 문규현 신부를 안고 울고 있는 모습.



2011년 초조대장경 조성 천년을 맞아 열린 세계문화축전 개막식.



2023년 상월결사 인도순례 당시 자승 스님과 순례단이 도보순례하는 모습.



2024년 9월 28일 열린 국제선명상대회에서 진우 스님과 명상전문가가 선명상 실참하는 모습.

고난에도 불교중흥 걸음 멈추지 않았다

현대불교 30年 불교뉴스 30選

1994년 10월 15일 창간한 현대불교 신문이 창간 30주년을 맞았다. '불교의 생활화, 현대화. 세계화'를 사시로 현대불교신문은 신행포교전문지로서 그 역할을 해왔다. 부처님의 말씀을 정론을 통해 전하고 모든 이들이 부처님 말씀에 함께 하기를 서원한다. 지난 30년 동안 현대불교가 전한 뉴스 중 30대 뉴스를 연도별로 선정했다.

1994년 조계종 종단사태, 종단개혁

1994년 조계종사에서는 큰 시련의 한 해였다. 3월 23일 '범승가종단개혁추진회'가 출범했으며, 두 차례에 걸쳐 공권력이 투입으로 유혈충돌이 발생했다. 창간 전의 사태로 본지엔 보도되지 않았다.

1995년 송광사 16국사 진영 도난

1995년 교계는 송광사 국사전 16국사 진영 중 13국사 진영이 도난당하며 한 해를 시작했다. 불교문화유산 관리에 대한 각성을 일깨우는 계기가 됐다.

1996년 사찰환경 훼손 심각

해인사골프장 건립, 봉은사 아셈행사장 건립, 선암사 앞 아파트 건립 등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무분별한 개발로 전국의 사찰 환경이 훼손됐다.

1997년 잇따른 사찰 방화, 성보 도난

부처님오신날을 앞두고 육군특수전학교가 법회에 참가하는 사병들에게 반성문을 쓰게 하고 법당 주변에 인분을 뿌리는 등 상상도 못할 훼불사건을 일으켰으며, 북한산 일대의 사찰들이 연쇄적인 방화공포에 떨었다.

1998년 국난 극복·조계종 종단사태

IMF경제난과 관련하여 한국불교종단협의회가 주최하는 국난극복기원 참회대법회가 전국 8곳에서 개최됐다. 조계종 제29대 총무원장 선거에서 불거져 나온 월주 스님의 3선 문제로 조계종 사태가 발생했다.

1999년 〈가산불교대사림〉 출간

가산불교문화원이 세계 최대 불교사전으로 평가될 수 있는 〈가산불교대사림〉 1, 2권을 편찬했다. 지관 스님의 문자사리 〈가산불교대사림〉은 2024년 완간됐다.

2000년 디지털 고려대장경 완성

불교계의 오랜 숙원이었던 고려대장경 전산화 작업이 결실을 맺었다. 고려대장경연구소는 고려대장경 전체를 CD 15장에 담아 '고려대장경 2000'을 발간했다.

2001년 한글대장경 318권 완간

동국역경원이 37년간 진행해온 대규모 역경불사의 결과물인 한글대장경 318권이 완간됐다.

2002년 천태종립 금강대 개교

불교계 네 번째 정규대학인 천태종립 금강대가 개교했다.

2003년 불교환경운동사의 정점

2003년 한국불교는 '환경보살' 자체였다. 수경 스님이 새만금 개발을 막기 위해 전국을 '삼보일배'로 순례해 국민적 감동을 자아냈다. 고속철도 천성산 관통을 막기 위해 지율 스님이 단식 정진을 이어갔다.

2004년 '서울시 봉헌' 물의

이명박 서울시장이 5월 한 개신교 종교대회에서 '서울시 봉헌' 발언으로 불교계의 공분을 샀다.

2005년 낙산사 화재

4월 5일 산불로 천년고찰 양양 낙산사 전각 37채 중 22채가 전소됐다. 처참했던 화재당시의 모습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불자들은 물론 국민들이 큰 충격을 받았다.

2006년 도난성보 회수

6월 백양사 아미타극락회상도를 반환받았고, 10월에는 불화, 석탑 등 전국의 사찰과 서원 등지에서 도난당한 문화재를 취득·은닉해 온 사설박물관 등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에 의해 적발됐다.

2007년 경주 열암곡 마애불 발견

5월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가 작업 중 5.6m에 달하는 엎어진 마애불을 발견해 세상을 놀라게 했다.

2008년 8.27 범불교도대회 개최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빈번하게 발생한 공직자들의 종교편향 행위로 인해 불교계는 물론 사회적으로 논란과 혼란이 야기됐다. 결국 8월 27일 범불교도대회가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27개 종단 스님과 신도 등 20만 명의 불자들이 동참한 가운데 열렸다.

2009년 낙산사 복원 불사 회향

2005년 4월 5일 강원도 일대를 휩쓴 산불로 소실됐던 양양 낙산사가 4년여에 걸친 복원 불사 끝에 10월 12일 옛 가람의 모습을 되찾았다.

2010년 '무소유' 법정 스님 원적

'무소유'로 한 시대의 큰 스승이었던 법정 스님이 3월 11일 세수 79세, 법랍 56세로 송광사 서울 분원 길상사에서 원적에 들었다.

2011년 초조대장경 조성 천 년의 해

초조대장경 조성 1000년을 맞은 해였다. 경상남도와 해인사가 9월 23일~11월 6일 개최한 '대장경 천년 세계문화축전'은 불교문화의 저력을 통해 불교 위상을 드높인 성과를 거뒀다.

2012년 스님들 도박, 몰카 사건

4월 터진 백양사 승려 도박·몰카 사건은 불교를 넘어 사회로까지 확산됐다.

2013년 주요 종단 수장 교체

2013년 이슈는 '제34대 조계종 총무원장에 누가 당선될 것인가'였다. 10월 10일 열린 선거에서 자승 스님이 당선됐다. 주요 종단 수장이 교체 됐는데 태고종은 도산 스님이 진각종은 회정 정사가 종단 수장이 됐다.

2014년 조계종 법인법 갈등

조계종이 '법인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을 추진하며 선학원과 극심한 갈등을 빚었다. 결국 인천 용화선원장 송담 스님이 조계종을 탈종했다.

2015년 범계 의혹, 갈등의 한 해

조계종 주요 스님들의 범계 의혹이 불거져 불교계 안팎이 시끄러웠으며, 태고종은 내홍으로 종단협에서 자격이 정지되기까지 했다. 동국대 학내 갈등도 1년 내내 이뤄졌다.

2016년 국정농단 사태, 스님도 퇴진운동

일명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불거진 국정농단 사태로 촛불시위가 전국적으로 이어졌다. 조계종은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했으며, 스님들의 시국선언도 이어졌다.

2017년 '부처님오신날'공식 명칭화

정부는 '석가탄신일'의 공식명칭을 2019년부터 '부처님오신날'로 변경을 결정했다. 조계종 등 각 종단들과 불교 신행단체들은 일제히 환영 논평을 냈다.

2018년 산사, 세계유산 등재 '쾌거'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는 6월 30일 바레인에서 열린 제42차 회의에서 '산사, 한국의 산지승원'을 세계유산으로 등재키로 결의했다. 이에 따라 법주사, 마곡사, 선암사, 대흥사, 봉정사, 부석사, 통도사 7곳은 '산사, 한국의 산지승원'이라는 이름으로 세계유산에 이름을 올리게 됐다.

2019년 천막결사 상월선원 정진

조계종 前 총무원장 자승 스님을 비롯해 성곡·호산·무연·심우·진각·도림·인산 스님은 상월선원이라고 명명된 비닐하우스 선원에서 동안거 정진에 들어갔다.

2020년 연등회 인류무형유산 등재 확정

국가중요무형문화재 제122호 연등회가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됐다.

2021년 상월결사 삼보사찰 천리순례

상월선원 만행결사가 '삼보사찰 천리순례'로 이어졌다. 삼보순례단은 10월 1일 송광사에서 입재하여, 해인사 거쳐 10월 18일 통도사에서 회향했다. 5개 광역시도, 11개 시군 거치며 총 19일간 423km를 걸으며 만행했다.

2022년 템플스테이 20주년

2002년 운영을 시작한 템플스테이가 20주년을 맞았다. 2002년 33개 사찰에서 시작, 현재 전국 143개 사찰에서 운영될 정도로 템플스테이는 명실상부한 한국전통문화 관광콘텐츠로 자리매김했다.

2023년 '부처님 법 전합시다' 확산

상월결사 인도순례 회향식에서 자승 스님이 던진 화두인 '부처님 법 전합시다'가 종단적으로 확산됐다. 자승 스님의 원적 이후에도 이 화두는 이어지며 다양한 사업으로 구현되고 있다.

2024년 불교도대법회 국제선명상대회

조계종이 '선명상 대중화'를 위해 9월 28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개최한 불교도대법회가 성료했다. 이날 대회 일환으로 열린 국제선명상대회에서는 3만5000명이 운집해 선명상을 체험했다.

현대불교신문 창간 30주년을 축하합니다

국가지정 명승
호리병 속의 별천지 쌍계사, 청학동, 우리들의 이상향
723년 개산, 828년 차나무 최초 식재, 840년 창건

선(禪)·교(敎)·율(律) 차(茶)와 범패(梵唄)의 근본도량

대한불교조계종 쌍계총림 雙磎寺

사부대중 일동

주소 : 경상남도 하동군 화개면 쌍계사길 59
전화 : 종무소 055-883-1901 www.ssanggyesa.net

